결혼·출산 선도 도시 '총력'

익산시, 아이 키우는 가정 정부 지원 확대… 모든 난임부부 소득 상관없이 지원

익산시는 올해 주민 피부에 와닿는 지원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해나가며 결혼·출산 친화 사회를 만드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익산시는 정부의 인구 정책 확대 기조에 발맞춰 '아이가 태어나면 익산이 키운다'는 인식이 확실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특색있는 복지 정책을 발굴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우선 시는 임신을 희망하는 모든 난임부부에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정부가 올해부터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단가를 인상한 것과 별개로 2021년부터 익산시 자체 사업으로 정부 지원 사업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일부 가구에도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고 있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을 위한 익산시의 세심한 배려는 돌봄 서비스 강화에서도 엿볼 수 있다. 시는 2021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 사업을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 요청으로 각 가정에 파견된 아이돌보미가 아이들의 놀이 활동과 식사 등·하원 지원 등 전반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정부 지원 사업이다. 가구별 소득에 따라 일정한 수준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는데, 익산시는 본인 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해 양육 가정의 부담을 덜어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밖에도 시는 새해 들어 확대되는 정부의 출산 정책에 대한 대민 홍보를 강화해 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결혼·출산 친화적 사회 조성을 위한 정부 정책에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신설 △첫만남 이용권·부모 급여 확대 △신생아 특례 대출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의 공제 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확대되는 제도다. 부부합산 최대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양가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게 되면서 증여세 부담이 줄었다.

이와 함께 부모 급여 지원액을 0세는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는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한다. 출산 직후 지원받는 첫만남이용권은 200만 원(첫째)~300만 원(둘째 이상)을 포함해 0~1세 영아기 지원액을 2,000만 원 이상으로 강화한다.

또한 출산한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중금리 대비 1~3% 대의 저렴한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신생아 특례 주택자금대출을 신설하고 기존 대비 소득 기준을 2배 완화해 적용한다.

대출 시행 이후 추가 출산한 경우 추가 우대금리 적용과 특례기간 연장 등을 적용한다. 특례 대출은 오는 29일부터 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에서 신청 가능하며 기금e든든 누리집에서도 접수 가능하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첫 번째 자리를 마련했다.

현장의 목소리 직접 듣는다

익산시, 교육지원청·교육발전특구 발전방안 간담회

익산시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첫 번째 자리를 마련했다.

익산시와 익산교육지원청은 지난 12일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와 각 학교 학부모회장 등 학교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익산시 교육발전특구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학생을 위한 지역 중심 돌봄교육과 자율형 공립고나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를 통한 지역산업과의 연계방안 등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

강동욱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장은 "익산시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다"며 "갈수록 중요해지는 교육을 교육청뿐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적극 지원해주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어 든든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교육도시로서의 명성을 되찾고, 익산시가 교육발전특구로 지정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올바른 식생활 위한 맞춤형 사업 추진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국가 예산 3억6500만원 투입

익산시가 어린이와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급식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올해 국가 예산 3억6,500만 원을 투입한다.

익산시는 어린이·사회복지 급식 관리 지원센터를 통해 안전하고 균형 잡힌 먹거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익산시는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 등의 시설과 취약계층 대상 사회복지 시설 등 총 247개소에 대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시는 급식의 영양실태, 조리 환경 등 시설 방문 점검을 총 1,400여 회 실시했고, 교사와 어린이, 조리원 등에게 1,700여 차례에 걸친 교육을 실시했다.

올해는 △병이리체력장&식습관 개선 프로젝트 △우리 지역 먹거리 교육 △편식예방 교육 △꼬마요리사와 함께 하는 요리 수업 △교구 및 교육자료 대여 △찾아가는 염도계 대여 서비스 등 총 10개 특화사업을 중점 운영할 방침이다.

채수훈 위생과장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식생활 맞춤형 사업을 운영해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균형있는 영양식단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깨끗한 식품 안전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다이로움 취업박람회 정기적 개최

익산시가 2023년에 이어 올해도 다이로움 취업박람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시가 지난해 처음 도입한 '다이로움 취업박람회'는 구직자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구인기업에는 '우수한 인재'를 연결해주는 것을 목표로하며, 매월 세 번째 주 화요일 청년 시청에서 개최된다.

다이로움 취업박람회는 2023년 한 해 동안 134개 기업 기관이 모여 인재 채용을 진행했으며, 1,500여 명의 구직자가 참여해 180여 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시는 올해 다이로움 취업박람회를 통해 앞서 큰 호응을 얻었던 대기업 현직자 초청 멘토링을 여러 차례 추진해 청년들을 위한 취업 정보 제공에도 힘쓸 예정이다.

특히 오는 9월에는 NS홈쇼핑과 연계해 하림을 비롯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등 식품기업을 중점으로 한 대규모 취업박람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취업박람회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구직자에게는 3개월 고용 유지시 정착 장려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참가자에게는 1인당 5만 원의 면접비 지원, 청년포인트 제공, 면접 이미지컨설팅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취업박람회의 첫 시작은 오는 16일 오후 2시다. 이날 행사에는 순수본 주식회사와 ㈜하림산업, (유)위제스 등 5개 기업이 참여해 30여 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인재 등용문 역할을 톡톡히 해온 다이로움 취업박람회를 올해도 지속적으로 개최하며 양질의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면서 "익산시는 일자리 문제해결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일자리 정책을 강구해 시민모두가 다이로운 익산시를 만드는 데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강사양성 과정' 수강생 모집

군산시는 장애인 평생학습 요구에 맞춰 장애인들이 다양한 삶의 영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강사 양성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생을 모집한다.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강사양성과정'은 한국장애인평생교육연구소에서 위탁 운영되는 교육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바른 이해, 장애인 평생교육 강사의 역할 및 비전, 긍정적 행동 지원 이해, 장애인 평생교육의 이해 및 개발 등의 과정으로 구성된다.

교육은 비대면(ZOOM)으로 내달 6일부터 29일까지 8회에 걸쳐 진행되고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수강생은 이달 24일 오후 6시까지 40명을 모집하며, 군산시민 중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심 있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양성교육 수료자에 한해 2024년도 찾아가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마음 쉼' 전문강사·매니저, 발달장애성인 지역사회 적응교육 '별맞춤' 메이트를 선발하여 발달장애인에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본 교육 수료자에게는 1년 이내 군산시발달장애인평생학습관 강사 채용 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수강 신청 등 자세한 안내는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군산시평생학습장보망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군산시발달장애인평생학습관(☎063-454-5926)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김판곤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군산시는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매년 1월, 3월, 6월, 9월 네 차례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 시기에 따라 할인율이 최대 4.58%에서 1.28%로 줄어들어 1월에 신청해야 최대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6일부터 1월 말까지 군산시 세무과 방문 혹은 전화(454-2400)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 홈페이지 및 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해 온라인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서 전년도에 연납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공제된 납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군산=김판곤기자

익산시, 정보공개 종합평가 5년 연속 전국 '최우수'

익산시가 5년 연속 정보공개 종합평가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익산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550개 공공기관 중 9곳만을 선정하는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뽑히며 행안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기업 등 총 550개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평가해 제도 운영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를 제고하기 위한 평가다.

선정을 위해서는 △사전정보공표 △원문정보공개 △정보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및 제도 운영 등 4개 분야, 12개 세부 지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진다.

익산시는 종합평가에서 사전정보공표 등록 건수와 충실성, 비공개 세부 기준 적합성, 청구처리의 적정성, 고객 수요분석 실적 등의 지표에서 평가단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익산=이재춘기자